

##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세대 역량 강화

**앵흐바야르 조릿바토르**

**몽골 청년 위원회 상무이사, 몽골**

대리 발제 : 홀란 프로젝트 디렉터, IPYG 몽골

안녕하십니까, 몽골 청년 위원회의 상무이사 앵흐바야르 조릿바토르의 대리발제를 하게된 몽골 IPYG 지부 프로젝트 디렉터 홀란입니다. 인사가 비자이슈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제가 대리로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몽골 청년주권평화워크숍(YEPW) 프로젝트에 대해 발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몽골은 아시아 중앙의 내륙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한국과도 많은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진행해온 나라입니다. 유목민족으로 유명한 만큼 몽골에 오시면 말을 타는 사람들과 전통 게르,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몽골은 2021년 기준 전체인구가 약 330만이며, 그중 35세 미만이 62%로 연령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은 나라입니다. 특히 15-25세의 청년이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의 참여와 목소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IPYG와 협력하고 있는 몽골 청년 위원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중요한 나라이기에, 몽골 청년 위원회(MYC)는 청년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채택하는 청년 관련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몽골 청년위원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의 사회참여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며 청년들이 민주주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기에 IPYG와 몽골청년위원회는 몽골 청년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몽골 청년 위원회는 상반기에 진행된 2번의 IPYG의 행사에 참석하면서 IPYG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청년 위원회는 IPYG와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에 컨퍼런스의 내용과 목적에 깊이 공감했고, 더불어 5월 28일 몽골에서 열린 평화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높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몽골청년위원회와 IPYG는 몽골 청년들의 기후변화대응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막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몽골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기후의 변화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1990년대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7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막화로 인해 경작 농지가 줄어들고, 식물 자원이 줄어들며 가시적인 식량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이 줄어들자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일어나며 인구 밀도가 증가한 도시에서 실업, 치안 불안정 등의 2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기후 위기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맞닥뜨린 문제이지만, 보다 긴 삶을 영위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막화로 인한 1차, 2차적인 문제들은 청년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몽골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10억 그루의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무 심기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성과가 우리에게 이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청년들은 나 자신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몽골 사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몽골의 평화와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reen wave of peace in Mongolia'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사막화에 맞서는 청년들의 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특히 이 활동은 YEPW와 저희가 구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지난 6월, HWPL과 IPYG은 평화의 가족들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몽골 국립공원에 5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곳에는 HWPL 이 대표님의 정신이 담긴 표지석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 활동을 위해 YEPW를 조직하고 YEPW의 프로젝트로 함께 1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화로운 대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이곳은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고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평화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활동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골의 미래를 짊어준 청년들이 환경을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이 프로젝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수립된 YEPW 연간 계획에 따라 기후 위기에 대한 세미나, 청년 및 사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홍보하고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청년 참여 동아리를 만들어 청년 중심으로 이를 알리고 활동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무 심기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에 맞춰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는 등 생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IPYG가 주최한 몽골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전의 행사들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아 현재 12개의 청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YEPW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기에 서로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가며 어려움들을 극복해갈 것입니다. 또한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본인의 땅을 기증하여 나무를 심어도 된다는 제안과 요청도 오고 있습니다.

청년은 그 나라의 미래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평화세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는 IPYG를 통해 여러 다른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몽골청년이 주도하는 몽골의 '새마을 운동-Green wave of peace in Mongolia'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나아가 평화세계를 이루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